

高麗 출신 碩人 王氏 墓誌銘 攷釋

閔庚三*

<목 차>

1. 머리말
2. 서지와 내용
 - 2.1 서지사항
 - 2.2 원문 및 주석
 - 2.3 번역문
 - 2.4 王彬과 王琳의 표기 문제
3. 부인 선조의 流轉
 - 3.1 固始에서 閩으로, 閩에서 다시 新羅로
 - 3.2 高麗에서 宋으로
4. 부인의 家系
 - 4.1 조부 王彬
 - 4.2 부친 王宗望
 - 4.3 남편 楊畏
5. 맺음말

1. 머리말

중국 洛陽 부근에는 20세기 초부터 적지 않은 古代 韓人 과련 石刻 자료가 출토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료 소개와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다. 본 논문은 高麗인 王彬의 손녀 “부인(碩人) 王氏의 墓誌銘”에 대한 소개와 고찰이다. 본

* 白石文化大學校 中國語學部 教授.

墓誌銘은 2005년 中國 洛陽에서 출토되었으며, 본 연구자가 한국 학술계에 처음으로 소개하였다.¹⁾ 부인 왕씨는 《高麗史》와 《宋史》에 등장하는 高麗人 王彬이란 인물의 손녀이며, 《宋史》에 보이는 楊畏의 부인이다. 본래 부인의 고조부 王彥英과 증조부 王仁侃 두父子는 唐末 중국 福建에서 배를 타고 新羅에 들어가 相國이 되었다. 왕조가 新羅에서 高麗로 바뀌었을 때 그녀의 조부 王彬은 다시 高麗에서 宋으로 건너가 仕路에 나간다. 부인의 남편 楊畏는 北宋朝의 言官이었다. 이처럼 부인 家系의 인물과 남편에 대한 기록은 한국과 중국의 사서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반면 부인에 관한 기록은 기존 문헌에 보이지 않고 있어, 부인에 대한 정보는 본 墓誌銘에 근거할 뿐이다. 본 묘지명에 “고조부가 난리를 피해 배를 타고 바다 남쪽으로 가니 신라의 왕이 한번 보고는 기특하게 여겨 相國에 임명했다. 증조는 이름이 仁侃으로 부친을 이어 국가 권력을 잡았으며 훗날 光祿卿에 봉해졌다.”고 되어 있어, 역대 사서에서 상관 인물들을 찾아 가계를 구성할 수 있다. 아울러 본 墓誌銘으로 그 家系 인물에 대한 고증과 남편에 대한 기록을 보충할 수 있다.

중국에서 발굴되는 古代 韓人 관련 석각 자료의 소개, 정리, 연구는 다양한 가치를 지닌다. 한중 양국간의 문화교류사, 유민사, 꺾락된 사료의 보충, 문헌 학적인 가치 등 학술계에 다양한 원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기초 자료의 소개, 주석, 번역 등을 통하여 2차적인 학술 연구에 보다 많은 긍정적인 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이다.

www.kci.go.kr

1) 본 원고는 2009년 4월 18일에 열린 신라사학회 제 82차 학술발표회 발표 원고 <中國 洛陽 신출토 古代 韓人 墓誌銘 연구>의 '碩人 王氏 墓誌銘'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2. 서지와 내용

2.1 서지사항

본 묘지명의 제목은 “宋故碩人王氏墓誌銘”이다. 墓誌銘은 靑石으로 변의 길이가 73cm의 정방형, 38행에 각행 39글자로 되어있다. 蓋는 墓誌에 비하여 조금 크며 篆書로 3행에 매행 3글자로 되어 있다. 誌文의 撰述과 書寫者는 王純²⁾이고, 蓋에 篆字를 쓴 사람은 張杲³⁾이며, 刻者는 당시 石工인 袁異⁴⁾이다. 享年 66세의 나이로 宣和 6년(1124) 8월 15일에 사망하였고, 그 해 10월 29일에 당시 河南縣 龍門의 선영에 있는 남편의 무덤에 합장을 한다. 原石은 2005년 5월 中國 洛陽市 남쪽 龍門의 張溝村에서 출토되어 현재 중국의 洛陽理工大學에 소장되어 있다.⁵⁾

2.2 원문 및 주석

宋故碩人1)王氏墓誌銘并序

兒中奉大夫直龍圖閣提學西京崇福宮文安縣開國男食邑三百戶賜紫金魚袋純撰

-
- 2) 王純은 부인의 오빠이다. 《宋史·選舉志》卷156에 “徽宗은 老莊의 학문을 숭상하여 知兗州 王純에게 《御注道德經》의 주석에서 논제를 출제하게 하였다.(徽宗崇尚老氏之學, 知兗州王純乞於《御注道德經》注中出論題.)”란 기록이 있다.
- 3) 張杲는 徽宗 崇寧 5년(1106) 11월에 “京畿轉運司”가 되었고, 政和 7년(1117) 7월에 “中山守”가 되었다. 宣和 6년 金나라의 남행에 西道副都總管이 된다.(《宋史》卷352에 의거), 아울러 <嵩山崇福宮題名>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金石文考畧》卷14에 의거)
- 4) 袁異는 政和 4년에 <王士英妻范氏墓誌>과 <王士英墓誌>을 刻하였고, 政和 7년에는 <胡琮墓誌>, 政和 8년에는 <吳震妻王氏墓誌>을 각하였듯이 당시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지닌 장인이었다.
- 5) 서지사항은 趙振華의 <北宋楊畏妻王氏墓誌與王彥英相國新羅>에 근거, 《東北史地》2006年第5期, 26쪽.

并書

徽猷閣直學士通奉大夫致仕清河郡開國侯食邑一千二百戶張杲篆蓋

故朝散大夫、充寶文閣待制致仕，贈太中大夫楊公諱畏之碩人曰王氏，其先光州固始人。高祖避五季之亂，乘桴游海南，新羅國王一見奇之，命以相國。曾祖諱仁侃，繼執國柄，後贈光祿卿。祖諱彬，生有英氣，年十八，聞藝祖定天下，慨然白其王曰：“中國有真人出，請歸。”王偉其言，即貢於於朝。登進士甲科，仕至太常少卿，歷三路轉運使，贈金紫光祿大夫，爲時名卿。父諱宗望，故任中散大夫，充集賢殿修撰，歷工部侍郎，贈開府4)儀同三司；踐揚2)中外3)六十年，以君子長者稱。自金紫葬汝州梁縣，遂爲汝人。

碩人生稟異質，天資淑慎。平居不妄言笑，事父母以孝聞。喪母榮國夫人錢氏，開府以其孝謹，爲遴選其配久之。至元豐末，楊公初自御史出，提點5)夔州路刑獄。開府時領轉運使，以楊公風度凝遠，問學高妙，甚器之。逮元祐間，楊公再擢爲御史。以太夫人年高，有再醮意。聞碩人有賢行，來求之，曰：“是必能事吾母而母吾子也。”及歸，姑果稱其孝，而子愛其慈。逮其姑棄養，執喪盡禮。

楊公自昔立朝，志在裕陵6)。會元祐更法，公爲御史，明目張膽，推明國是，多所排擊，時論稱之。紹聖間，謀北師，自吏部侍郎以寶文閣待制守常山。其後進退遑遑，請宮祠居洛，垂二十年，處之裕如，而碩人亦未嘗以出處爲欣口。

洛城之南，有禹鑿龍山，相距十五里，伊水貫其中，兩山有佛刹，境爲勝絕。侍郎公與碩人攜諸幼稚，嘗游息焉。又卜築伊水之西爲別墅，曰松齋。疏流泉，植松竹。每風月之勝，杖履笑傲，徜徉物外以自樂。衆嘆其數奇，而獨以自適也。政和癸巳，朝廷亟召，方將大用，而遽以疾不幸矣。士論惜之。

碩人于侍郎公之出處向背，皆能析其是非。侍郎公先碩人捐館一紀越，自稱未亡人，則屏斥鉛華，栖心向道。衣淡素，從尼禪師智光游，請法名曰淨覺，求所以達大道之理，卒有得焉。

碩人治家，整肅有法，凡侍郎公之遺範，一無所違，內外親族，咸所矜式。至于歲時薦享7)，展省松楸8)，必備陳事生之禮，始終如一。嗚呼！如碩人者，豈徒必敬必戒，無違夫子，以順爲正而已耶？侍郎公親睦族屬，撫存幼孤，先疏後親，

恩義備盡，碩人贊助有力焉。碩人歸楊氏，無所出。拊憐兒女，不啻如己出也。又以兄之女妻其子臨。長女因喪夫抱疾，攜幼子侄來歸。病既篤，囑碩人曰：“此兒願留外家，勿使歸。”許之乃絕。碩人鞠育存恤，與己子等，日使就問學。至成立，爲擇名家娶婦，以侍郎公遺表官之。嘗曰：“吾不負其托矣。”次女孀居，自遠來館于於家，終不忍使其去其側。噫！慈仁若此，眞可謂有婦德矣。

碩人氣體康強，齒髮未衰。一日自外歸，易衣坐憩，舉家侍前。命小鬟按新歌，碩人亦自歌。未闕，目若眩索，就枕，家人掖至寢所。越翌日，無甚疾而化，享年六十有六，實宣和六年甲辰八月十五日也。碩人平時神情常自適，有林下風⁹⁾。去年來汝陽，語女弟曰：“我他日撒手便行，更無餘念。”弟怪其言。今乃無甚疾苦，倏焉而逝，得非知所謂諸幻悉滅，非幻不滅，得智光之發藥¹⁰⁾耶？

初封永寧縣君，會新制改封碩人。子男二，鼎，萊州防禦推官、監西京左藏庫，先碩人卒。臨，承奉郎、監西京商稅務。女三，長適朝奉郎、隴州通判王希聲。次適通直郎、知唐州比陽縣張伯淳。次許嫁¹¹⁾而卒。孫男三，仲忽，從政郎、新差監相州酒稅。仲偃，未仕。仲弓，登仕郎。孫女一，曾孫女一。以宣和六年十月二十九日奉碩人喪合拊于侍郎公之墓，卽河南縣龍門之原祖塋也。余蚤從侍郎公游，視碩人則女弟也。其孤甥臨，狀其行來請銘，哀傷而爲之銘曰：倚嗟夫人，淑慎提身；來嬪楊宗，法度是循。承姑以孝，鞠子以仁；親睦內外，厥愛咸均。雍容肅括，御家有倫；所遇丕泰，了無戚欣。嗟乎！其逝奚遽，其歸則眞；龍門之原，伊水之濱。窀穸是拊，逍遙迹陳。施及孫子，有來詵詵。袁異刊。

註釋：

1) 碩人：宋代 부인에 대한 封號이자 존칭으로 쓰였다. 宋·龐元英의 《談藪·曹詠妻》에：“曹詠 侍郎의 妻·碩人 厲氏는 餘姚의 큰 가문의 딸이었다. (曹詠 侍郎의 妻碩人 厲氏, 餘姚 大族女.)” 淸·王士禛의 《香祖筆記》卷九에：“《楓窗小牘》에 婦人의 封號는 夫人 아래 모두 여덟 등급이 있다. 예를 들면 侍郎 이상은 碩人에 봉하였다. ……오늘날 모두 없어졌다. 碩人, 孀人은 모두 부인에 대한 통칭이 되었다. (《楓窗小牘》言婦人封號, 自夫人以下凡八等. 如侍郎以上

封碩人……今皆無之。碩人、孺人，率爲婦人之通稱矣。”란 구절이 있다.

2) 踐揚: 벼슬의 경력을 말한다. 宋 王禹偁의 《謝除刑部郎中知制誥啓》에 “竊念某猥以腐儒，受知先帝，踐揚兩制，出處九年.”란 구절이 있다.

3) 中外: 朝廷의 內外, 혹은 중앙과 지방을 뜻한다. 《漢書·元帝紀》에 “以用度不足，民多復除，無以給中外繇役.”이란 구절이 있다. 宋 司馬光 《與吳相書》에 “竊見國家自行新法以來，中外恟恟，人無愚智，咸知其非.”란 구절이 있다.

4) 開府: 고대에 三公, 大將軍, 將軍과 같은 고급 관원으로 구성된 부서, 혹은 그 부서의 관원을 말한다. 《後漢書·董卓傳》에 “催(李催)又遷車騎將軍，開府，領司隸校尉，假節.” 宋 周輝의 《清波別誌》卷上에 “史君開府未浹旬，欲戴綸巾揮白羽.”란 구절이 있다.

5) 提點: 관직 명칭이다. 宋때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천거하고 점검의 의미를 지닌다. 주로 司法, 刑獄 및 河渠 등의 일을 맡는다. 宋 蘇軾의 《龍川別誌》卷下에 “既而許公自濱罷，擢提點兩浙刑獄.”란 구절이 있다.

6) 裕陵: 宋代 神宗에 대한 호칭. 神宗의 陵을 永裕陵이라하였다. 河南省 鞏縣 西南쪽에 있다. 宋 蘇軾의 《送陳伯修察院赴闕》詩에 “裕陵固天縱，筆有雲漢姿.”이란 구절이 있다.

7) 薦享: 제사를 뜻한다. 唐 韓愈의 《省試學生代齋郎議》에 “故曰：議罷齋郎，而以學生薦享，亦不得其理矣.”란 구절이 있다.

8) 松楸: 묘지를 뜻한다. 소나무와 개오동나무를 묘지에 많이 심은 것에 기인한다. 혹은 부모의 묘지를 가리키기도 한다. 唐 劉禹錫의 《酬樂天見寄》에 “若使吾徒還早達，亦應簫鼓入松楸.” 宋 洪邁의 《容齋續筆·思穎詩》에 “歐陽修逍遙於穎，蓋無幾時，惜無一語及於松楸之思.”란 구절이 있다.

9) 林下風: 숲속의 바람 기운. 宋 蘇軾의 《題王逸少帖》詩에 “謝家夫人淡豊容，蕭然自有林下風.”란 구절이 있다.

10) 發藥: ‘약을 처방한 다’는 뜻으로 약이 될 만한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권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莊子·列御寇》에 “先生既來，曾不發藥乎?”란

구절이 있다.

11) 許嫁: 혼인을 허락함을 뜻한다. 《禮記·曲禮上》에 “女子許嫁, 纓.”란 구절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鄭玄은 “女子許嫁, 系纓, 有從人之端也.”라고 注釋을 하였다.

2.3 번역문

宋故碩人王氏墓誌銘并序

兄인 中奉大夫, 直龍圖閣提學, 西京崇福宮文安縣開國男, 食邑三百戶, 賜紫金魚袋인 王純(王純)이 撰하고 아울러 쓰다.

徽猷閣直學士, 通奉大夫致仕, 清河郡開國侯, 食邑一千二百戶인 張杲는 蓋에 篆字를 쓰다.

故朝散大夫, 充寶文閣待制致仕, 贈太中大夫인 楊畏의 부인 王氏는 그 선조는 光州 固始사람이다. 高祖때 五季의 난리를 피하여 배를 타고 바다의 남쪽(신라)으로 갔다. 新羅의 國王이 한 번 보고는 기특하게 여겨 相國으로 명하였다. 曾祖는 淮(諱)가 仁侃으로 이어서 국가의 권력을 쥐었으며, 훗날 光祿卿에 내려졌다. 조부는 淮(諱)가 彬으로 태어나서부터 英氣가 있었다. 18세의 나이에 宋의 藝祖(조광윤)가 天下를 안정시켰다는 사실을 듣고는 개연히 왕에게 “중국에 眞人이 나왔다고 하니 돌아가기를 청합니다.”라고 아뢰었다. 국왕은 그 말을 대단하게 여기어 바로 宋의 조정에서 致仕를 하게 하였다. 進士의 甲科에 올라서 벼슬이 太常少卿에 까지 오르고 三路轉運使를 역임하고 金紫光祿大夫가 내리니 당시 名卿이 되었다. 부친은 淮(諱)는 宗望으로 中散大夫에 임명되어 集賢殿修撰에 들어가서 工部侍郎을 역임하고 開府儀同三司가 내리었다. 조정의 안과 밖에서 60년을 지냈는데 君子와 같은 어른이라고 칭해졌다. 金紫로부터 汝州의 梁縣에 장례를 지내니 마침내 汝人이 되었다.

부인은 기이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니 천부적인 자질이 정숙하고 조심스러

웠다. 평소에 함부로 말하거나 웃지 않았다. 부모를 섬김에도 효녀로 소문이 났다. 모친 영국부인(榮國夫人) 전씨(錢氏)는 개부(開府)에서 효와 근신함으로 어렵게 그녀의 짝을 오래도록 찾았다. 원풍(元豐) 말년에 양공(楊公)이 처음으로 어사(御史)에서 나와서 기주로(夔州路) 형옥(刑獄)에 제점(提點)이 된다. 개부에 있을 적에 영전운사(領轉運使)는 양공의 풍도(風度)가 원대하고 학문이 높다고 매우 큰 그릇으로 여기었다. 원우(元祐) 년간에 양공은 다시 어사로 발탁된다. 태부인(太夫人)의 나이가 많고 짝을 구해주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부인이 어진 품행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와서 구하며 말하였다. “이는 반드시 나의 부모를 섬길 수 있고 나의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시집을 오게 되니, 시어머니는 과연 그 효도함을 칭찬하고 자녀들은 그의 인자함을 사랑하였다. 그 시어머니가 봉양을 저버림에 미쳐서는 상례를 극진히 다하였다.

양공은 예전 조정에 들어갔을 때부터 신종(神宗) 황제에 뜻을 두었다. 원우(元祐) 년간에 법을 바꿈에 공은 어사가 되었다. 눈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국시(國是)를 미루어 밝히었다. 많은 배격을 받았지만 당시에 칭송이 있었다. 소성(紹聖) 년간에 북수(北帥)를 도모하여 이부시랑(吏部侍郎)으로부터 보문각시제(寶文閣待制)로 상산(常山)을 맡았다. 그 후 진퇴에 있어 뒤로 물러나 궁사(宮祠)를 청하여 낙양에 20년을 머물렀지만 처세는 오히려 여유로웠다. 부인 또한 출처로 문제를 삼지 않았다.

낙양성 남쪽 우(禹) 임금이 판 용산(龍山)과의 거리가 15리이다. 이수(伊水)가 그 가운데를 관통하고 두 산에 불찰(佛刹)이 있고 절경을 이룬다. 시랑공(侍郎公)과 부인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일찍이 노닐며 쉬곤 하였다. 또한 이수(伊水)의 서편에 송재(松齋)라는 별채를 지었다. 샘물을 소통시켜 흐르게 하고 송죽을 심었으며, 매번 풍월의 아름다움에 지팡이와 신을 끌며 거만하게 웃고, 세상사 밖에 노닐면서 스스로 즐기었다. 대중들은 그의 신기함에 탄식을 하나 홀로 유유자적할 뿐이었다. 정화(政和) 년간 계사(癸巳)에 조정에서 자주 불러 가야흐로 장차 크게 중용하려 하였지만 돌연 질병으로 불행하게 생을 마

친다. 선비들이 그것을 애석하게 논하였다.

부인은 시랑공의 출처의 향배에 모두 그 시비를 분석할 수 있었다. 시랑공이 부인보다 먼저 세상을 등지자 스스로 미망인이라 하였다. 분으로 화려하게 함을 배척하고 마음을 늘 도를 향함에 두었다. 의복은 소탈하게 하였으며, 비구니 지광(智光)을 따라 노닐었는데 범명을 정각(淨覺)이라 부르기를 청하였다. 대도(大道)에 이르는 이치를 구하여 마침에 얻음이 있었다.

부인이 집안을 다스림은 정숙하고 법도가 있었다. 시랑공이 끼친 유훈을 하나도 어김이 없었다. 친족의 안팎에서 모두 본받으려 하였다. 제사를 올릴 적에는 성묘를 하고 반드시 살아 계실 적에 모시던 예법을 모두 갖추기를 처음과 같이 한결 같았다. 오호라! 부인은 어찌 한갓 공경하고 조심하여 남편의 뜻을 어기지 않고 따르는 것으로만 정도를 삼았겠는가? 시랑공이 친척들을 화목하게 함에는 어리고 외로운 이를 먼저 어우르고, 소원한 사람을 먼저하고 친한 사람을 뒤에 하여 은혜와 의리가 모두 갖추어졌으니 부인이 찬조한 힘이 있다. 부인은 楊氏에게 시집갔으나 출산하지 못하였다(碩人歸楊氏, 無所出). 아이를 돌보고 가련히 여김이 자신이 낳은 것뿐만이 아니었다. 오빠의 딸을 자신의 아들에게 시집오게 하였다. 장녀가 남편이 죽고 병에 걸려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었다. 병이 이미 심하게 되어 부인에게 “이 아이는 외가에 머물게 하고 돌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하자, 부인이 허락하니 이에 바로 죽었다. 부인이 불쌍한 아이들을 기르고 가엽게 여기는 것이 자신의 자식들과 똑같이 하여 날로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 묻고 배우게 하였다. 나이 15세가 되자 명가를 택하여 장가를 보내고 侍郎公의 유표(遺表)에 따라서 벼슬하게 하였다. “내가 그 부탁을 저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였었다. 차녀가 과부로 살면서 먼 곳에서 집에 들르러 왔는데 차마 그 곁을 떠나가게 할 수 없었다. 슬프다! 자애롭고 인자함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부인의 품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인은 기체가 강녕하여 치아와 머리가 쇠하지 않았었다. 하루는 밖에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앉아서 쉬는데 온 집안 식구가 앞에서 모셨다. 소환에게 새로운 노래를 하게하고(按新歌) 부인 또한 노래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눈이

흥미해지는 것 같아 취침하려 가족들이 부축하여 침소로 갔다. 다음날 심한 질병 없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66세로 선화(宣和) 6년 갑진(甲辰) 8월 15일 이었다. 부인은 평상시에 정신과 감정이 항상 여유자적하여 숲속의 바람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작년에 여양(汝陽)에 와서 여동생에게 “내가 며칠 후에 손을 놓고 바로 떠날 것이니 다시금 다른 생각을 갖지 말라.”라고 말하자, 동생은 그 말을 괴이하게 여기었다. 이제 어떠한 병도 없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니 이른바 ‘모든 환상이 다 없어지고, 환상이 아니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니 智光의 가르침을 받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처음에 영녕현군(永寧縣君)에 봉해졌는데 마침 새로운 제도로 석인(碩人)으로 봉해졌다. 자녀들은 아들이 둘 이었다. 아들 정(鼎)은 래주(萊州)의 방어추관(防禦推官), 감서경좌장고(監西京左藏庫)을 지냈으나 부인보다 먼저 죽었다. 아들 림(臨)은 승봉랑(承奉郎), 감서경상세무(監西京商稅務)를 지냈다. 딸은 셋이었다. 장녀는 조봉랑(朝奉郎), 농주통판(隴州通判)인 王希聲에게 시집을 갔다. 차녀는 통직랑(通直郎), 지당주비양현(知唐州比陽縣) 장백순(張伯淳)에게 시집을 갔다. 3녀는 결혼을 허락하였으나 죽고 말았다. 손자가 셋으로 그 중에 중훈(仲忽)은 從政郎, 新差監相州酒稅을 지냈으며, 仲偃은 벼슬하지 않았고, 仲弓 사랑(仕郎)에 올랐다. 손녀는 한명, 증손녀도 한명이다. 선화(宣和) 6년 10월 29일에 부인을 시랑공의 무덤에 합장을 하였으니, 바로 하남현(河南縣) 용문의 동산에 있는 선영이다. 내가 일찍이 시랑공을 따라 노닐었는데 그 부인은 바로 나의 여동생이다. 고아 생질이 그 행실을 설명하고 명문(銘文)을 청하였다.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다음과 같이 명문을 짓노라. 슬프다! 부인이여. 정숙하고 조신하게 몸을 가꾸었다네. 양씨 가문에 시집와서 법도를 따랐네. 효도로 시부모를 받들고, 어질게 자녀들을 기렀다네. 집안 안팎을 화목하게 하여, 그 사랑이 모두 균등하였다네. 온화한 용모로 엄숙하게 단속하여, 집안을 다스림에 윤리가 있었다네. 불행과 행복한 일을 만남에 걱정이나 기뻐하지 않았다. 슬프다! 세상을 갑자기 떠나갔으나 참된 곳으로 돌아갔다. 용문의 언덕, 이수(伊水)의 물가. 무덤을 어루만지며 자취를 소묘하니, 은혜는

자손에게 미치니 많이들 와서 흠모하도다.

원이(袁異)가 새기다.

2.4 王彬과 王琳의 표기 문제

王彬은 부인의 조부이다. 그러나 王彬은 역대 문헌에 王琳과 혼재되어 기록이 일정하지 않다. 본 묘지명의 기록과 각종 문헌의 기록들을 비교 분석하여 부인의 조부는 ‘王彬’이 아닌 ‘王彬’임이 분명해졌다. 아래에서 그러한 주요 기록들을 살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안을 얻고자 한다.

《宋史·外國列傳·高麗》에 “순화 3년에 상(上)이 각 도의 공거인(貢舉人)들을 친히 시험하여 고려(高麗)의 빈공(賓貢)인 진사(進士) 왕빈(王彬)과 최한(崔罕) 등에게 급제를 주고 관직을 제수한 다음 본국으로 돌려보냈다.”란 기록이 있으며, 《高麗史·選舉志·制科》에, “성종(成宗) 5년(986)에 최한(崔罕)과 왕림(王琳)을 송나라에 보내어 국자감에 입학시켰는데, 11년(992)에 최한과 왕림이 빈공과(賓貢科)에 합격하여 비서랑(秘書郎)에 제수되었다.”⁶⁾고 하였다. 위에서 보듯이 《송사》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과 고려시기의 기록에는 왕빈(王彬)으로 되어 있고, 《고려사》 이후의 한국 측 기록에는 왕빈(王彬)과 왕림(王琳)이 혼재 되어 있다.

아래는 왕빈(王彬)으로 표기된 주된 기록들이다.

《宋史·王彬傳》: “王彬은 光州의 固始人이다. 조부의 諱는 彦英이며, 부친의 諱는 仁侃이다. 그들의 일가는 王潮를 따라서 閩中지역에 들어왔다. 왕조는 민중 지역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왕언영이 일처리를 꽤 잘하자, 왕조는 그가 후에 세력을 펴볼까 두려워 몰래 그를 해치려 하였다. 왕언영은 그것을 알고 가족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신라로 달아났다. 신라에서는 그의 재주를 매우 아끼어 중용하

6) 《高麗史·制科》: “(景宗)五年遣崔罕王琳如宋入學. 十一年罕琳登賓貢科授秘書郎.”

었다. 두 부자는 서로 계속하여 국정을 집행할 수 있었다.”⁷⁾

《續資治通鑒長編》: “淳化 3년에 황상은 직접 道貢舉人을 시험하고, 高麗의 賓貢進士인 王彬, 崔罕 등에게 及第의 조서를 내린다. 관직을 제수하고 本國으로 보내었다.”⁸⁾

南宋 陳傅良의 《淳熙三山志》: “왕빈은 高麗의 관원으로 장락사람이다. 애초에 가족들이 高麗에 달아났기에, 외국학생의 빈공자격으로 태학에 들어와 과거에 급제를 하여 校書郎에 제수 받고 귀국한다.”⁹⁾

徐兢의《高麗圖經》: “태종황제가 훌륭하다고 하여, 그 수효 안에서 뽑았다. 왕빈(王彬)·최한(崔罕) 등은 진사 급제(進士及第)로 장사랑 수비서성교서랑에 제수되었다.”¹⁰⁾

清 徐松의 《宋會要輯稿補編》: “빈공 왕빈과 최한은 모두 비서성교서랑에 제수되고, 고려로 돌아갔다.”¹¹⁾

崔灌 《拙藁千百》의 <送奉使李中父還朝序>: “.....우리 고려에 이르러서 일찍이 송(宋)나라에 선비를 빈공으로 보내었다. 순화(淳化) 연간에 손하(孫何)가 주관하는 시험에 왕빈(王彬)과 최한(崔罕)이 합격하였고, 함평(咸平) 연간에 손근(孫僅)이 주관하는 시험에 김성적(金成績)이 합격하였고, 경우(景祐) 연간에 장당경(張唐卿)이 주관하는 시험에 강무민(康撫民)이 합격하였다.....”¹²⁾

李穀의 《稼亨集·雜錄》과 徐居正的《東文選》에 이와 같은 동일 기록인 <送奉使李中父還朝序[崔灌]>이 보인다.

《조선왕조실록》 <謝恩使金禮蒙齋勅回自大明>: “.....혹은 자제(子弟)를 보내와서 입학(入學)하도록 허락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王彬 등이 과거에 뽑혀 보내어 돌아온 것이나 韓昉의 무리들이 사신으로 갔다가 잠시 머무른 것 같은 유이다.....”¹³⁾

魚叔權의 《稗官雜記》와 趙慶男의 《歷代要覽》에도 위와 같은 기록이 있으며,

- 7) 《宋史·王彬傳》: “王彬, 光州固始人. 祖彥英, 父仁侃, 從其族人潮入闔. 潮有闔土, 彥英頗用事, 潮惡其逼, 陰欲圖之. 彥英覺之, 挈家浮海奔新羅. 新羅長愛其材, 用之, 父子相繼執政.”
- 8) 《續資治通鑒長編》: “淳化三年, 上親試諸道貢舉人, 詔賜高麗賓貢進士王彬、崔罕等及第, 既授以官, 遣還本國.”
- 9) 《淳熙三山志》卷26 <人物類·科名>淳化3年 孫何榜: “王彬, 系高麗官員, 長樂人. 初竿族奔高麗, 以外國生賓貢入太學. 至是登第, 授校書郎放歸.”
- 10) 《高麗圖經》: “太宗皇帝嘉之, 用擢其數內. 王彬崔罕等進士及第, 授將仕郎守祕書省校書郎.”
- 11) 《宋會要輯稿補編》淳化3年3月22日: “賓貢王彬、崔罕并受祕書省校書郎, (於)〔放〕歸高麗.”
- 12) 《拙藁千百》 <送奉使李中父還朝序>: “.....逮我高麗, 亦嘗貢士於宋. 淳化孫何榜, 有王彬崔罕. 咸平孫僅榜, 有金成績. 景祐張唐卿榜, 有康撫民.”
- 13) 《조선왕조실록·世祖6년》8月 26日(己巳) 1번째 기사, <謝恩使金禮蒙齋勅回自大明>: “.....或許遣子弟入學, 他如王彬等擢科遣還, 韓昉輩因使暫留之類.....”

李德懋의 《靑莊館全書·宋史筌高麗列傳》에도 “최한(崔罕)과 왕빈(王彬)을 보내어 태학에 입학시켰다.(遣崔罕, 王彬入學.)” 유사한 기록이 있다.

李裕元의 《林下筆記》에 <중국 과거 시험에 합격한 우리나라 사람들>: “……강전(康戡)·최한(崔罕)·왕빈(王彬)·김성적(金成績)·강무민(康撫民)·권적(權適)·조석(趙奭)……”

李荇 등의 《新增東國輿地勝覽》 “……김행성(金行成)·최한(崔罕)·왕빈(王彬) 등이 서로 잇달아 송 나라 국자감(國子監) 국자감(國子監)”

韓致滄 《海東釋史》의 <高麗>, <學禮>, <崔罕>편: “본국의 학사(學士) 최한과 왕빈(王彬)을 파견하여 국자감(國子監)에서 학업을 익히게 하였다.”

아래는 왕림(王琳)으로 표기된 주된 기록들이다.

梁誠之의 《訥齋集》: “선조는 병부시랑으로 고려의 좌복야 벼슬에 있던 왕림의 딸을 취하였다. 왕림은 빈공으로 송나라 빈공과에 올랐다. 이 때문에 중국의 조정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¹⁴⁾

金宗瑞 等の 《高麗史節要》: “병술 5년(986)이 해에 최한(崔罕)과 왕림(王琳)을 송에 보내어 태학에 입학하게 하였다.(是歲, 遣崔罕, 王琳, 如宋入學.)”과 “최한(崔罕)과 왕림(王琳)이 송의 빈공과(賓貢科)에 올라 비서랑(祕書郎)의 벼슬을 받았다.”¹⁵⁾란 기록이 있다.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고려에는 강전, 김행성, 왕림, 최한, 김성적, 강희민, 권적, 조석, 김단, 김록……가 있었다.……”¹⁶⁾

李晳光의 《芝峯類說》: “……고려에 이르러서도 송에 빈공으로 벼슬한 사람이 있었으니, 왕림, 최한, 김성적, 강무민, 권적, 김단 등이 있다.……”¹⁷⁾

이외에도 安鼎福의 《東史綱目》과 李肯翊의 《燃藜室記述》에도 王琳으로 표기한 유사한 기록들이 보인다.

위 기록들을 통해서 王彬과 王琳은 공간적인 이동, 시간적이 추이, 그리고

14) 《訥齋集·世實失傳記》: “先祖兵部侍郎, 娶高麗左僕射王琳之女, 王公以貢士登宋賓貢科, 以是見待於中朝.”

15) 《高麗史節要》: “崔罕, 王琳, 登宋賓貢科, 受祕書郎而還.”

16) 《五洲衍文長箋散稿·東人參中國榜眼辨證說》: “……高麗: 康戡, 金行成, 王琳, 崔罕, 金成績, 康熙民, 權適, 趙錫, 金端, 金祿……”

17) 《芝峯類說·科目》: “……逮高麗, 亦貢士於宋, 有王琳, 崔罕, 金成績, 康撫民, 權適, 金端等……”

함께한 인물에 있어서도 동일한 구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王彬과 王琳은 동일 인물로서 사서의 轉寫 과정에서 ‘彬’과 ‘琳’이 모양이 비슷함(形相似)으로 인하여 생긴 誤字라 볼 수 있다. 사서의 오류 문제는 당연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 할 수 있는 부인의 묘지명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

3. 부인 선조의 流轉

唐末 혼란기에 부인의 선조는 중원지역의 固始¹⁸⁾에서 남방의 閩지역으로 이주를 한다. 그들은 閩지역에서 한 동안 생활하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다시 배를 타고 신라에 들어간다. 그 후 부인의 고조부는 신라에서 相國이 되었고, 증조부는 諱가 仁侃으로 부친을 이어 신라의 높은 지위를 누렸으며, 훗날 光祿卿에 봉해진다. 조부는 諱가 彬으로 18세의 나이로 고려에서 宋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王彬은 송에서 빈공의 신분으로 進士의 甲科에 올라서 벼슬이 太常少卿에까지 오르고, 三路轉運使를 역임하고 金紫光祿大夫가 내려진다. 부친의 諱는 宗望으로 임명되어 集賢殿修撰에 들어가고, 工部侍郎을 역임하고 開府儀同三司를 지낸다. 이와 같은 부인 선조 여정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3.1 固始에서 閩으로, 閩에서 다시 新羅로

부인의 선조가 중국에서 신라로 가서 신라에서 상국을 지내는 과정에 대해

18) 固始: 오늘날 中國 河南省 信陽市에 속한다. 固始는 蓼城, 蓼都이라고도 한다. 河南省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河南省과 安徽省의 경계에 있다.

여 본 묘지명과 《宋史》에 유사한 기록이 있다. 묘지명에는 “그 선조는 光州 固始사람이다. 高祖는 五季의 난리를 피하여 배를 타고 바다의 남쪽(신라)으로 갔다. 新羅의 國王은 한 번 보고는 기특하게 여겨 相國으로 명하였다. 曾祖는 諱가 仁侃으로 이어서 국가의 권력을 잡았으며, 훗날 光祿卿에 내려졌다.”¹⁹⁾라고 되어 있다.

《宋史·王彬傳》에도 “王彬은 光州의 固始人이다. 조부의 諱는 彦英이며, 부친의 諱는 仁侃이다. 그들의 일가는 王潮를 따라서 閩지역에 들어왔다. 왕조는 민지역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왕언영이 일처리를 꽤 잘하자, 왕조는 그가 후에 세력을 펴박할까 두려워 몰래 그를 해치려 하였다. 왕언영은 그것을 알고 가족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신라로 달아났다. 신라에서는 그의 재주를 매우 아끼어 중용하였다. 두 부자는 서로 계속하여 국정을 집행할 수 있었다.”²⁰⁾라고 하였다.

위의 두 기록은 모두 부인의 선조가 중원지역 光州 固始를 떠나 남방 閩 땅을 거쳐 신라로 들어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唐에서 신라 혹은 宋에서 고려로 가는 해상 노선은 長江 이북의 登州와 明州의 항구에서 들어가는 항로와 長江 이남의 泉州와 福州의 항구에서 신라와 일본으로 가는 항로가 있었다. 그 중에 長江 이남의 항구를 이용하여 신라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공간의 추이는 당연히 시간적인 추이 속에서 일어난다. 묘주의 선조 이동의 시간 추정은 친족이며 당시 閩 지역의 실력자 王潮와 시간과 공간의 궤를 함께 한다할 수 있다. 王潮는 僖宗 光啓元年(885) 正月에 固始에서 王緒의 起兵을 따라 江西, 廣東을 거쳐 福建에 오게 된다(《新唐書》의거). 光啓二年 八月에 福建觀察 陳岩은 王潮를 泉州刺史로 올린다. 昭宗 景福二年(893) 十月 戊戌에 泉州刺史 王潮는 福建觀察使가 되어 五閩의 땅을 가지게 된다. 乾寧四年(897)

19) <碩人王氏墓誌銘>: “其先光州固始人. 高祖避五季之亂, 乘桴游海南, 新羅國王一見奇之, 命以相國. 曾祖諱仁侃, 繼執國柄, 後贈光祿卿.”

20) 《宋史·王彬傳》: “王彬, 光州固始人. 祖彦英, 父仁侃, 從其族人潮入閩. 潮有閩土, 彦英頗用事, 潮惡其逼, 陰欲圖之. 彦英覺之, 挈家浮海奔新羅. 新羅長愛其材, 用之, 父子相繼執政.”

十二月 丁未에 王潮는 사망한다. (《資治通鑒》에 의거) 王潮가 固始를 떠나 閩으로 이주하여 생활했던 시기는 885년에서 897년에 이르는 13년의 기간이다. 따라서 묘주의 선조 王彥英이 신라로 향해 배를 타고 갔던 시기는 王潮가 閩의 땅을 할거하던 886년에서 897년의 11년 사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당시는 바로 唐末로서 墓誌에 말하고 있는 “高祖가 五季의 난리를 피하여 뗏목을 타고 바다의 남쪽으로 가서” 新羅에 이른 것이다.

3.2 高麗에서 宋으로

唐과 統一新羅, 宋과 高麗는 지속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교류를 통하여 상대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구도 속에 王彥英 부자의 인품과 재능은 당시 唐의 선진 문화를 흡수하고자 한 신라의 태도가 王彥英 부자를 수용하게 된 주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수도에는 중국인이 수백명이 있었다. 대부분 閩지역에서 商船을 타고 온 사람들이었다. 몰래 그들의 능력을 시험하여 벼슬로 설득하고 혹은 억지로 머물게 하여 생을 마치게 하였다.”²¹⁾ 아울러 신라 멸망 후에 王氏 후손들은 지속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여 高麗 정권에서도 벼슬을 하게 된다. 이들은 高麗시기에 宋으로 들어가 벼슬을 하고 정착하게 된다.

《高麗史·制科》에 “景宗 5년에 崔罕과 王琳(彬)을 파견하여 宋에 들어가 태학에 들어가게 하였다. 11년에 崔한과 왕림은 賓貢科의 授秘書郎에 오른다.”²²⁾란 간단한 기록이 있으며, 묘지명에 “조부는 諱가 彬으로 태어나서부터 英氣가 있었다. 18세의 나이에 宋의 藝祖(조광윤)가 天下를 안정시켰다는 사실을 듣고는 개연히 왕에게 “중국에 眞人이 나왔다고 하니 돌아가기를 청합니다.”라고 아뢰었다. 국왕은 그 말을 대단하게 여기어 바로 宋 조정에 조공을 하게 하였

21) 《宋史·高麗傳》：“王城有華人數百，多閩人因賈舶至者，密試其所能，誘以祿仕，或強留之終身。”

22) 《高麗史·制科》：“(景宗)五年遣崔罕王琳如宋入學。十一年罕琳登賓貢科授秘書郎。”

다. 進士의 甲科에 올라서 벼슬이 太常少卿에 까지 오르고 三路轉運使를 역임하고 金紫光祿大夫가 내리니 당시 名卿이 되었다. 부친은 휘(諱)는 宗望으로 中散大夫에 임명되어 集賢殿修撰에 들어가고 工部侍郎을 역임하고 開府儀同三司가 내리었다.”²³⁾라고 되어 있다.

4. 부인의 家系

墓誌와 《宋史》의 기록에 근거하면, 부인의 가계는 ‘彦英—仁侃—彬—宗望—夫人, 純’으로 이루어져 있다.

4.1 조부 王彬

현존하는 한국 문헌에는 본 묘지명에 등장하는 부인의 조부 王彬의 이름과 일치하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高麗史》에 나오는 王琳과 본 묘지명 및 중국 사서에 보이는 王彬이 중국에 들어가는 과정과 중국에서의 행적이 일치하고 있다. 즉 《高麗史·制科》 卷74에 “成宗 5년에 崔罕과 王琳을 파견하여 宋에 들어가 태학에 들어가게 하였다. (성종)11(992)년에 최한과 왕림은 賓貢科의 秘書郎에 오른다.”²⁴⁾란 기록과 《宋史·高麗傳》에는 高麗國 왕은 宋太宗 雍熙 3년(986) “10월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을 하였다. 다시 본국의 학생 崔罕, 王彬을 파견하여 國子監에 나아가 학업을 하게 하였다.”²⁵⁾란 기록이 있

23) <碩人王氏墓誌銘>: “祖諱彬, 生有英氣, 年十八, 聞藝祖定天下, 慨然白其王曰: “中國有真人出, 請歸.” 王偉其言, 卽貢於於朝. 登進士甲科, 仕至太常少卿, 歷三路轉運使, 贈金紫光祿大夫, 爲時名卿. 父諱宗望, 故任中散大夫, 充集賢殿修撰, 歷工部侍郎, 贈開府儀同三司.”

24) 《高麗史·制科》卷74: “五年遣崔罕王琳如宋入學, 十一年罕琳登賓貢科授秘書郎.”

25) 《宋史·高麗傳》: “高麗國王治于太宗雍熙三年(986)十月, 遣使朝貢, 又遣本國學生崔罕、王彬詣國子監肄業.”

다. 《續資治通鑒長編》에는 “淳化 3년에 황상은 직접 道貢舉人을 시험하고, 高麗의 賓貢進士인 王彬, 崔罕 등에게 及第의 조서를 내린다. 관직을 제수하고 本國으로 보내었다.”²⁶⁾란 기록이 있다.

사서의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高麗 成宗 5년에 崔罕과 王彬을 파견하여 宋에 들어가 태학에 들어가게 된다. 그 후 成宗 11년에 崔한과 王彬은 賓貢科의 秘書郎에 오른다. 이때 나이 겨우 18세로 賓貢의 신분으로 太學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淳化 3년에 진사에 급제한다. 지방관으로 刺史와 京官으로 轉運使를 역임하고 太常少卿으로 생을 마감한다. 중간에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하였지만, 고려 국왕이 다시 王彬을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청원하여 중국에 재입국하여 활동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

4.2 부친 王宗望

王宗望의 字는 礪叟으로 王彬의 아들이자 본 墓主의 부친이다. 음관으로 夔州路轉運副使에 발탁되어 倉部郎中, 司農少卿, 江淮發運使 등을 두루 거쳤다. 부친이 비록 高麗에서 왔으나 王宗望의 출생, 성장, 활동은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국 사서에는 그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나, 반면 중국 사서에 그의 활동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다. 《宋史》에 傳記가 있으나 그의 저술이나 저작물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당시 정계와 문단에서 영향력을 가진 蘇轍, 梅堯臣 등과의 詩文을 교류할 정도의 두터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들로부터 받은 시문이 적지 않다.²⁷⁾ 변법을 지지하는 정파를 元豐黨에 반대하

26) 《續資治通鑒長編》: (淳化三年, 上親試諸道貢舉人, 詔賜高麗賓貢進士王彬、崔罕等及第, 既授以官, 遣還本國.)

27) 蘇轍의 시 “送王宗望郎中赴河東漕: ‘春初戎馬掠河壖, 屬國倉皇不解鞍. 未免驅民餽邊食, 旋聞奉使輟郎官. 年高轉覺精神勝, 慮穩要令事業安. 持節近看葱嶺雪, 擁裘應慣雁門寒.’”와 梅堯臣의 시 “送王宗望罷宣城尉歸京: ‘南土梅已黃, 北人舟競發. 去意方若渴, 望林殊未歇. 言歸向梁宋, 獨歎滯楚越. 行聞拜卿屬, 恩下蒼龍闕.’”를 통해서 王宗望과 이들의 빈번했던 교류와 두터웠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는 元祐黨에 지지를 보낸다.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사관들의 王宗望에 대한 평가도 비교적 긍정적이다. 《宋史》에 실린 그의 일화 두 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王宗望은 음관으로 夔州路轉運副使에 발탁되었다. 哲宗이 즉위하여 사면과 군사에게 상을 내렸으나, 萬州에는 열흘이 다 되어도 내리지 않았다. 취사병인 朱明은 대중들이 성난 것으로 대낮에 府宅에 들어가 守臣을 상하게 하였다. 左右에서 모두 놀라 흩어지자 그는 兵籍을 가지고 반란을 도모하였다. 宗望이 변고를 듣고는 夔州에서 급히 내달리어 먼저 명령을 내려 상을 주고, 그 다음에 주명을 참수하여 군령을 내렸다. 문지기가 다치는 것을 숨어 보고서 구하지 않았던 자들을 죄상을 캐서 물으니 조정에서 훌륭한다고 하였다. 한번은 楚州에서 淮水를 따라서 漣州에 이르는데 바람과 풍랑이 험하여 배들이 대부분 물에 잠기었다. 사람들은 開支氏가 도랑에 물을 끌어 運河로 들어오게 하였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터지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때公私의 이익을 위하여 宗望이 비로소 물길을 터서 제대로 다스리게 되었다.²⁸⁾

위의 기록에서 본다면 王宗望은 판단 능력과 처리 능력이 탁월한 인물로 되어 있듯이, 후대에 이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며 우호적이다.

4.3 남편 楊畏

4.3.1 楊畏의 出身

楊畏는 부인의 남편이다. 楊畏의 가족으로 長子는 鼎이고, 次子는 臨이다. 長孫은 仲忽이고 次孫은 仲偃이다. 三孫은 仲弓이다. 洪邁의 《夷堅志》에 “右

28) 《宋史·王宗望》卷343: “王宗望……以蔭累擢夔州路轉運副使. 哲宗即位, 行赦賞軍, 萬州彌旬不給. 庖卒朱明因衆怒, 白晝入府宅, 傷守臣, 左右驚散, 他兵籍謀兆亂. 宗望聞變, 自夔疾驅至, 先命給賞, 然後斬明以徇, 且竄視守傷而不救者. 乃自劾, 朝廷嘉之. 歷倉部郎中、司農少卿、江淮發運使.” “楚州沿淮至漣州, 風濤險, 舟多溺. 議者謂開支氏渠引水入運河, 歲久不決, 宗望始成之, 爲公私利.”

從政郎 楊仲弓은 天心法을 익혀서 사람의 안색을 보면 그를 받들 것인가 여부를 알았다. 乾道 년간에 道州叅事參軍으로 제수되었지만 받기만 하고 가지 않았다.” 부인의 묘지명에 “元豐 말년에 楊公이 처음으로 御史에서 나와서 夔州路刑獄에 提點이 된다. 개부에 있을 적에 領轉運使는 양공의 풍도(風度)가 원대하고 학문이 높다고 매우 큰 그릇으로 여기었다. 元祐 년간에 양공은 다시 어사로 발탁된다.” “神宗 元豐5년 11월 “宣德郎 洛陽 楊畏는 監察御史가 되었으니 中丞 舒晄의 추천에 의한 것이었다.”²⁹⁾. 《宋史》의 本傳에 楊畏의 進士가 된 이후 宰相 王安石에 기탁한 상황에 대한 서술이 있다. “西京의 國子監教授에 제수되고, 舒晄의 추천으로 監察御史里行이 된다. 舒晄이 學士院廚의 돈을 훔친 죄로 王安石에 보고되었지만 畏는 문장을 써서 실수라 할 수 있고 고의로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다. 晄은 파면되자 畏가 左轉宗正丞이 되고 提點夔州路刑獄이 된다.”³⁰⁾ 元豐6년 9월 楊畏는 舒晄의 사건 문건에 능숙한 언변과 두루뭉실하게 왜곡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였지만 선택되지 못하였다. 외지에서 떠돌다가 王宗望의 幕府에 들어가 꽤 호감을 얻게 된다. 당시에 왕종망은 夔州路轉運副使였다.

4.3.2 楊畏의 轉折

熙寧 2년(1069) 2월 王安石은 參知政事로 제수되어 變法을 주장한다. 元豐 8년 3월에 神宗이 세상을 떠나 그 주장을 중단하게 된다. 王安石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皇帝의 지지 아래 주창했던 변법운동은 熙寧變法이라 불리는데 대략 17년 동안 진행되었다. 楊畏는 王安石의 학풍을 존모하여 仕路에 나아가게 된다. 哲宗이 지위를 계승할 적의 나이는 겨우 9세에 불과하였다. 그로 인하여

29) <宋故碩人王氏墓志銘>: “元豐末, 楊公初自御史出, 提點夔州路刑獄. 開府時領轉運使, 以楊公風度凝遠, 問學高妙, 甚器之. 逮元祐間, 楊公再擢爲御史.” “宣德郎洛陽楊畏爲監察御史, 用中丞舒晄荐也.”

30) 《宋史·楊畏》 卷355: “除西京國子監教授, 舒晄荐爲監察御史里行. ……舒晄有盜學士院廚錢罪, 爲王安石所白, 畏抗章辨論, 以爲可謂之失, 未可謂之故. 晄罷, 畏坐左轉宗正丞, 出提點夔州路刑獄.”

宣仁太后가 수렴청정을 하고 司馬光을 등용한다. 1년 반 동안 변법을 통한 새로운 정치를 모두 폐지하였다. 사서에서는 그것을 ‘元祐更化’라 한다. 楊畏는 司馬光을 위하여 크게 찬양을 한다. 司馬光이 세상을 떠난 후에 “呂大防, 劉摯가 재상이 되어 함께 畏와 잘 지내었는데 畏를 工部員外郎을 삼고 監察御史로 제수하고, 殿中侍御史로 발탁하였다.” 그리고 다시 侍御史가 되었다. 묘지명에 “양공은 예전 조정에 들어갔을 때부터 유릉(裕陵: 神宗 황제)에 뜻을 두었다. 元祐 년간에 법을 바꿈에 공은 어사가 되었다. 눈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國是를 미루어 밝히었다. 많은 배격을 받았지만 당시에 칭송이 있었다. 紹聖 년간에 北帥를 도모하여 吏部侍郎으로부터 寶文閣待制로 常山을 맡았다. 《宋史》에 의거하면 永裕陵은 神宗의 묘릉의 명칭으로 간단히 裕陵이라 칭하니 神宗을 말한다. 당시의 문장 속에도 자주 보인다. 哲宗 元祐 5년 3월 “新永興軍路提点刑獄 楊畏가 監察御史가 되었다.” 御史의 직분은 백관백료들을 감찰하여 규율을 바로 잡는 일을 한다. 《宋史·職官志》에 監察御史는 從七品이며, 殿中侍御史는 正七品이며, 侍御史는 從六品으로 되어 있다. 관직의 품계가 비록 낮지만 오히려 고관들을 탄핵하고 황제를 비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楊畏는 바로 台諫에게 부여된 권한을 이용하여 곡학아세로 당시 국왕이 학정을 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4.3.3 楊畏에 대한 史家의 평

北宋 후기 神宗, 哲宗시기 정국의 변화가 변화무상할 적에 楊畏는 台諫官을 지내었다. 당시 사대부들은 대부분 상식과 원칙보다는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국을 따르는 형편이었다. 그로 인하여 이익 단체가 거듭 생겨나게 되어 관리들은 서로 편을 나누어 반목을 하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기도 하였다. 楊畏 또한 시류에 편승하는 당시 사대부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친구당과 간의 권력 다툼에 따라서 그 정치적인 입장을 수시로 바꾸었으니, 당시에 그를 “楊三變”이라 칭한 것이 과장은 아니었다. 王純은 墓誌銘에서 ‘楊畏가 마음을 다

하여 神宗을 보좌하고 나라를 위하여 진언을 하였으니, 哲宗 元祐년간 정국이 바뀔 즈음 당시 조정의 권력을 장악한 인물들에 대하여 폄하하는 직언을 하였다.'고 찬미를 하고 있다. 반면 《宋史》 등의 역대 사서에는 대부분 楊畏의 道德과 品行, 언행은 국가의 이익에 있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일신만을 위하여다고 폄하하고 있다. 즉, 정치적 격변 속에서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고 당시 권력자에게 붙어 승승장구한 그를 세상에서 “楊三變”이라고 조롱하였지만, 처남 王純은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그의 졸렬한 행위를 아름답게 포장하여 오히려 높게 찬양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묘지명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건의 특정한 지명, 인명, 시간 등에 대한 것은 확실한 고증 자료로 삼을 수 있지만 인물의 평가에 있어서는 완전한 근거로 삼기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4.3.4. 부인의 행적

부인의 평생 행적은 史書에 특별히 전하는 것이 없어 다만 본 墓誌의 기록에 근거할 뿐이다. 묘지에 따르면 부인은 자질과 인품에 있어서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다. “부인은 기이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니 천부적인 자질이 정숙하고 조심스러웠다. 평소에 함부로 말하거나 웃지 않았다. 부모를 섬김에도 효녀로 소문이 났다.” 부인의 시어머니는 그의 아들 양공의 배필을 구해주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평소 부인이 어진 품행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이는 반드시 나의 부모를 섬길 수 있고 나의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을 하고 그녀를 며느리로 취하였다. 부인은 시부모에게 살아가는 봉양의 예를 극진히 하였고, 죽어서는 상례를 다하였다. 부인은 楊氏에게 시집갔으나 출산하지 못하였다(頤人歸楊氏, 無所出). 그러나 친자녀가 아닌 다른 부인 출생의 아이를 돌보고 가련히 여김이 자신이 낳은 것 이상으로 하였다. 그 자식들에게 인자함과 사랑으로 정성을 쏟았다. 부인이 집안을 다스림은 정숙하고 법도가 있었다. 제사를 올릴 적에는 성묘를 하고 반드시 살아 계실 적에 모시던 예법을 모두 갖

추기를 처음과 끝이 한결 같았다. 남편 양공이 부인보다 먼저 세상을 등지자 스스로 미망인이라 하였다. 양공이 끼친 유훈을 하나도 어김이 없었다. 친족의 안팎에서 모두 본받으려 하였다. “분으로 화려하게 함을 배척하고 마음을 늘도를 향함에 두었다. 의복은 소탈하게 하였다.” 평소에 불가에 심취하여 “비구니 지광(智光)을 따라 노닐었는데 범명을 정각(淨覺)이라 부르기를 청하였다. 대도(大道)에 이르는 이치를 구하여 마침에 얻음이 있었다.”

처음에 영녕현군(永寧縣君)에 봉해졌는데 마침 새로운 제도로 석인(碩人)으로 봉해졌다. 자녀(다른 부인들 출생)들은 아들이 둘과 딸 셋이 있었다. 아들 鼎은 萊州의 防禦推官, 監西京左藏庫를 지냈으나 부인보다 먼저 죽었다. 아들 臨은 承奉郎, 監西京商稅務를 지냈다. 장녀는 朝奉郎, 隴州通判인 王希聲에게 시집을 갔다. 차녀는 通直郎, 知唐州比陽縣인 張伯淳에게 시집을 갔다. 3녀는 결혼을 허락하였으나 죽고 말았다. 손자가 셋으로 그 중에 仲忽은 從政郎, 新差 監相州酒稅를 지냈으며, 仲偃은 벼슬하지 않았고, 仲弓은 仕郎에 올랐다. 손녀는 한명, 증손녀도 한명이다. 宣和 6년 10월 29일에 부인을 시랑공의 무덤에 합장을 하였으니, 바로 河南縣 용문의 동산에 있는 선영이다.

5.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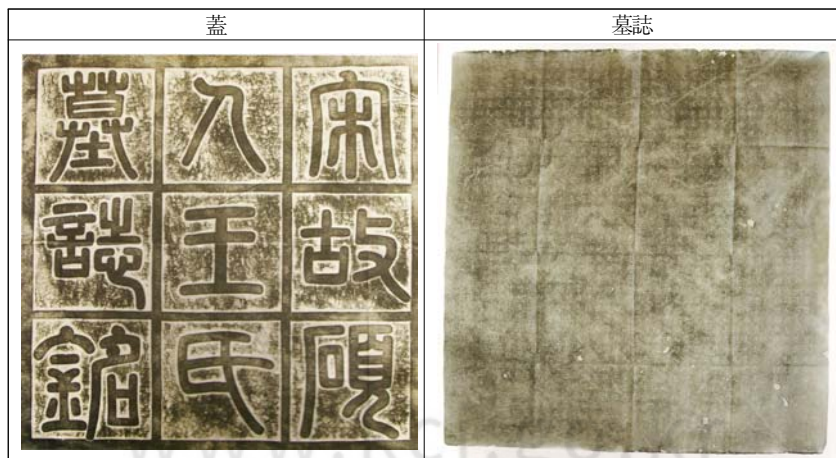
중국 洛陽지역은 石刻 자료의 보고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石刻 자료가 출토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다. 본 石刻 자료는 唐에서 新羅로의 공간의 이동과, 新羅에서 高麗로의 시간 추이, 다시 高麗에서 宋으로의 공간 이동 과정을 거친 王氏 부인의 墓誌銘이다.

부인 왕씨의 墓誌 출토 전까지 史書에 등장하는 ‘王琳’, ‘王彬’, ‘王純’, ‘楊畏’ 등은 서로 관계가 없는 별개의 인물로 간주되었었다. 본 墓誌의 출현과 연구로 ‘王琳’와 ‘王彬’는 본래 동일 인물로 글자의 오류가 있었음을 밝힐 수 있었으며,

‘王彬’, ‘王純’, ‘楊畏’ 등은 서로가 혈연이나 혼인으로 엮여진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墓誌의 撰자는 역대 史家로부터 그다지 호의적인 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楊畏’에 대하여 “많은 배격을 받았지만 당시에 칭송을 받았다.(多所排擊, 時論稱之)”고 하여 표면적으로 칭찬을 한 것 같지만, 내면에 당시의 입장을 빌어서 ‘楊畏’의 좋지 못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탁을 받고 글을 쓰는 입장에서 청탁자에게 긍정적인 기술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객관적인 평가를 무시하지 못하였음을 반증한다.

부인의 선조와 남편에 대한 기록은 한국과 중국의 여러 史書에 남아 있기에 家系 인물에 대한 조명은 크게 어렵지 않다. 다만 정작 부인 왕씨에 대한 기록은 현존하는 史書에서 그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본 墓誌의 출현은 부인 왕씨 한 개인의 활동과 이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다. 新羅, 高麗, 宋의 기록을 담고 있는 史書 속에 보이는 부인 王氏의 家系 인물과 역사적 사건들을 對校하거나 補史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附 墓誌 拓本 도판



<參考文獻>

- 《韓國文集叢刊(影印本)》，景仁文化社，1996.
- 《朝鮮王朝實錄(影印本)》，國史編纂委員會，1979.
- 鄭麟趾 等 撰，《高麗史(影印本)》.
- 金宗瑞等 撰，《高麗史節要(影印本)》.
- 劉昫 等 撰，《舊唐書》，中華書局(교점본)，1975.
- 宋祁，歐陽修 等 撰，《新唐書》，中華書局(교점본)，1975.
- 脫脫 等 撰，《宋史·楊畏傳》，中華書局(교점본)，1977.
- 李燾 等 撰，《續資治通鑒長編》，中華書局(교점본)，2004.
- 徐兢，《宣和奉使高麗圖經》，商務印書館(교점본).
- 徐松，《宋會要輯稿補編》，中華書局(교점본).
- 趙振華，〈北宋楊畏妻王氏墓誌與王彥英相國新羅〉，《東北史地》，2006年第5期.

< 中文提要 >

自古至今，在中國內出土、收藏、整理的石刻資料不計其數。其中，可以推斷有關古代韓人的石刻資料也不少。這些資料對於中國學術界，與一般金石文資料沒有什麼差別，但是對我們有重于千金的學術價值。因為這些資料對他們來說只是浩如煙海的金石文資料中的極小的一部分，所以沒有引起他們的注意并開展研究。通過對於此類墓誌的研究成果，我們可以理解古韓人之漢化過程和當時他們生活的具體面貌。

該論文就是對於“高麗人碩人王氏墓誌銘”的介紹和研究。墓誌于2005年5月出土于洛陽市南龍門張溝村，現藏洛陽理工大學。墓誌方形，邊長73厘米，楷書38行，滿行39字。墓蓋盈頂，較志略大，篆書3行，行3字，宋故碩人王氏墓誌銘。誌主之先人王彥英、王仁侃父子于唐末自福建出海，至新羅為相國。祖王彬自高麗入宋，登進士甲科，仕至太常少卿，歷三路轉運使，贈金紫光祿大夫，為時名卿。父王宗望，歷工部侍郎，贈開府儀同三司。誌主之丈夫楊畏為朝廷言官，如此誌主之祖先与丈夫皆見于史書記載。以此墓志可証補志主之祖先与丈夫的正史記載。

關鍵詞: 王仁侃、王彬、王宗望、墓誌銘、洛陽、楊畏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9. 30.	2013. 11. 11.	2013. 11. 15.	2013. 11. 26.	2013. 11. 30.